

SERMON 8 JANUARY 2017

Isaiah 42: 1-9

Matthew 3: 13-17

때때로, 사실 자주, 저는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수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일요일에 다른 어떤 요일 보다 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용합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 소통을 위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말을 사랑합니다, 단어들의 울림들을 말입니다, 단어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지요, 그 단어들이 얼마나 힘이 되기도 하고 쉽게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동안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심오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자리 주변에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공급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양분을 충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의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주 매끄러운 예배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에 미안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그리고 거룩한 것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고인이 된 레오나드 코헨의 말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말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단어들에 의해 만들어진 틀의 균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어떤 단어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에도, 모든 성경이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넓고, 넓은 세상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종종 그들이 듣는 단어들을 너무 자주 듣고 그들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요한 복음에 관해 읽은 그 말씀, 말씀으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여정,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추구 해야 합니다. 간단한 진술입니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항상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미국의 신학자인, 다이애나 버틀러 배스로부터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변화 시키느냐는 신앙을 깨우는 것 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전하는 것이고 -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변화 시킬 것 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의 넓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를 강조하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반 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징하는 것 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또한 부활의 삶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믿음의 긴 여정의 부분이 됩니다, 그 여정은 모든 어둠과 빛과 함께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도전과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례반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례명을 받는 것에 관한 것,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예수님 자신의 세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부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대중들의 이목을 끄니다. 또는 우리는 그것의 상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 이상의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에서 잘 알려 진 대로, 요단강은 약속의 땅의 경계였습니다. 그들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 그 자체만으로도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들, 인간 생활과

투쟁의 덧없음을 관해서 아는 사람들, 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 새로운 시작,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세레의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비둘기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가 이루어 졌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레로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 강으로 찾아 온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희망으로 함께하기를 선택하셨고, 그들의 과거의 죄들은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씻기어 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레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레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샘 웰스가 말하기를 “이 이야기의 요점은 결속력입니다.” 이것은 탈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속력에 관한 것 입니다, 단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세레를 받으심으로 모든 창조된 세상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임재함과, 그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곤경을 다루실까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 주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말씀 안의 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끊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종종 세상의 소음과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 여기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중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깊은 갈망으로서 변화에 관하여 가져온다면, 우리는 신중함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만 명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중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관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세상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기 위한 이야기의 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세상의 매우 놀랍도록 신비로운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러리즘"과 "두려움" 같은 단어들을 무시하는 사랑에 관한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 보존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랑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혼란과 절망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알아라, 이 아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 모두는 사랑 받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의 것을 듣기를 위해서 초대되었고,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메리 올리버의 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시를 모르신다면, 그녀를 찾아 보십시오. 이 시는 "야생 거위들"라고 불립니다. 야생 거위들은 또한 옛날 켈트족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야생 거위들

너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의 무릎으로 걸어야 할 필요가 없어.

사막의 회개를 통해 100 마일 동안.

너는 단지 너 자신이 되면 돼.

사랑하고 사랑하면 돼.

나에게 너의 절망과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줘.

그럼 나는 나의 이야기를 알려 줄게.

그 동안 세월은 계속 흘러가.

그 동안 태양과 깨끗한 비는

경관들 사이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대초원 위와 나무들 뿌리에

산들과 강들에 이동하고 있어.

그 동안, 야생 거위들은, 맑고 푸른 공기 위에,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어.

네가 누구든 간에, 아무리 외로워도

세상은 너에게 상상력 자체를 제공해.

야생 거위들처럼 너를 부르고, 거칠게 그리고 흥분해서

계속적으로 너의 위치를 알려줘

계속 전송되고 있는 것들을 말아야.